

산베 온천-배움의 탕

산베산의 남쪽에 있는 산베 온천의 원천에서는 분당 약 3,000L의 황토색 온천수가 샘솟으며, 이는 주고쿠 지방 최대의 용출량을 자랑합니다. 산베 온천의 원천수는 약 36도이며, 산의 남쪽에 있는 시가쿠 온천 마을에 흘러 들어갈 때 온천 온도가 조금 내려갑니다.

산베산의 온천에 관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산베 온천'이라는 이름은 1957년이 되고 나서야 확립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온천수는 마을의 옛 명칭을 붙여 '시가쿠 온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시가쿠'라는 명칭에는 원래 산베산에 있는 4개의 정상을 가리키는 '四岳(4개의 산)'라는 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 이 지방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마다 지쿄'가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교토로 향했습니다. 그는 귀향 후 자신의 학문에 대한 애정으로 마을 주민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자 마을 이름의 한자를 동음이의어인 '시가쿠(배움에 뜻을 둔다)'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옛 명칭인 '시가쿠 온천'을 나타낼 때 '배움의 탕'이라는 뜻의 새로운 철자를 사용합니다.

산베 온천은 염화물천이며 철의 산화로 온천수는 깊고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온천수의 꽃(유노하나)이라고 불리는 불용성 광물의 미립자가 천연 배스 솔트처럼 물속에 떠다니기에 온천수는 굉장히 탁합니다. 실제로 온천수의 꽃의 미립자를 추출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베의 온천수에 포함된 다른 광물로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있으며,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에는 소량의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어 살짝 거품을 생깁니다.

산베 온천에는 목욕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산베소

이곳 유서 깊은 료칸은 당일치기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녀 합해 16종류의 노천탕에는 표준적인 바위탕 외에, 1~2명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탕이 1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 탕, 편백나무 탕, 가마 탕, 나무 탕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7명의 신들(칠복신) 조각상 근처에는 큰 배 모양의 탕도 있습니다. 칠복신은 힌두교, 도교, 불교, 신도에서 선택받은 신들의 집단입니다. 소원을 비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범선에 올라탄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은 신입니다. 산베소에 있는 탕이 지닌 또 하나의 특색은 다른 온도의 온천수를 즐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입욕 시설 대부분은 유입되는 온천수를 40도 초반의 온도로 높이거나 냉각하며, 산베소에 있는 16개 탕 중 2개의 탕에는 원천 그대로의 미지근한 온천수를 사용하므로 입욕하시는 분은 현기증이 나는 일 없이 마음껏 온천에 몸을 담그실 수 있습니다.

쓰루노유

이 작은 공동목욕탕은 장수, 치유의 상징인 새인 두루미(일본어로 쓰루)와 연관 지어 '쓰루노유'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중목욕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수건과 입욕 용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누어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각 욕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샤워 헤드도 없으므로, 이용자는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히 씻고 들어갑니다. 밖에는 무료 족욕탕 2곳이 있습니다.

한 쪽은 산배 온천의 온천수, 다른 한 쪽은 발포성 냉천에서 퍼 올린 물이 들어있습니다. 발을 번갈아서 담그면 녹아든 가스가 강하게 찌릿찌릿한 자극을 선사합니다.

가메노유

이 작은 공동목욕탕은 장수와 현명함의 상징인 거북이와 연관 지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이 있는 정문에 남녀별로 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공중목욕탕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인근 주민도 목욕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옆 건물은 입욕 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라운지체어와 무료 도서관이 완비된 휴식 공간으로 개조되었으며, 수국을 심은 작은 정원의 풍경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가메노유와 쓰루노유에는 유자나 창포 잎 등 계절에 따라 향이 좋은 식물을 탕에 넣기도 합니다.